

## 홍사단 도서 구입 장부의 구성과 성격\*

권두연\*\*

1. 논의의 성격
2. 도서 구입 장부의 구성
3. 도서 구입 실태와 구입 도서 목록
4. 구입 도서의 성격과 '미주'라는 공간
5. 결론을 대신하여: 1910년대 서적 유통의 또 다른 길

### 국문요약

이 연구는 독립기념관에 소장된 1918~1920년까지의 홍사단 도서 구입 장부의 구성과 성격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홍사단은 실력을 갖춘 청년 양성을 목적으로 19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안창호를 중심으로 창립된 단체이다. 청년들의 실력 양성을 위해 홍사단은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출판과 도서관의 설립이고 도서 구입 장부는 바로 이러한 활동의 구체적 결과물로 간주된다.

홍사단 도서 구입 장부에는 구매인, 구매처, 구매 서적명, 가격, 권수, 할인액, 보험금, 우송료 등 구매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들이 기재되어 있다. 특히 어떠한 서적들을, 얼마나 구매했는지 그 서적명과 권수가 상세

\* “이 논문은 2016년도 한세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이 논문은 2017년 6월 3일 경북대학교에서 개최된 2017년도 한국문학언어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완한 것이다. 토론자 전은경 선생님과 중요한 질의 및 조언을 주신 김주현, 김재석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아울러 논문의 방향을 수정하는 데 도움을 주신 심사위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 한세대학교 교양학부 조교수.

하게 적혀 있어 홍사단 도서 구입 장부를 통해 서적 구매에 관한 각종 정보는 물론이고 홍사단이 구매한 서적들의 구체적 실태를 재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홍사단이 상당히 다양한 서적, 특히 기독교와 국문으로 된 서적을 구매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가운데 한글 소설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는 사실도 드러난다. 무엇보다 1910년대 국내에서는 유통될 수 없었던 금서들이 유통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동맹독서와 문자 보급에 힘쓴 홍사단의 성격을 드러냄과 동시에 국내와 다른 서적의 유통 양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주제어: 홍사단, 도서 구입 장부, 서적 유통, 도서 목록, 국문소설, 기독교 서적)

## 1. 논의의 성격

본 연구는 설립 초기 홍사단의 도서 구입 장부의 구성과 성격을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지하듯 홍사단은 19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도산 안창호에 의해 창립된 단체이다. 무실역행과 실력양성을 바탕으로 민족운동과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쳤으며 이후 청년 단체나 수양 단체로, 아카데미를 통한 학술 및 교육 단체에서 시민운동 단체로 100여 년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명실상부 종합적인 사회운동 단체로 자리매김하였다.<sup>1)</sup> 홍사단이 교육과 학습을 통해 사회적으로 훌륭한 인물들을 양성, 배출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 기여했음은 이견이 없다.<sup>2)</sup>

1) 홍사단에 관한 대표적인 서적은 다음과 같다. 홍사단본부, 『홍사단운동』, 대성문화사, 1955; 홍사단사편찬위원회, 『홍사단五〇년사』, 대성문화사, 1964; 홍사단운동70년사편집위원회, 『홍사단 운동 七十年사』, 홍사단출판부, 1986; 홍사단100년사위원회, 『홍사단100년사』, 사단법인홍사단, 2013 참조.

홍사단의 이 같은 사회·교육적 성격은 설립 당시부터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나는바, 홍사단 정신이라 불릴만한 이념을 추진한 여러 사업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설립 초기 무실역행을 실천하는 개인의 양성을 통해 민족의 독립과 국가의 부강을 준비하지는 취지를 내세운 홍사단은 이를 덕·체·지의 이념으로 구체화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교수부, 강습소, 강연회, 출판부, 도서관, 박물관, 체육장, 구락부 등을 설치하고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였다. 이 가운데 출판부와 도서관의 설립은 이후 동맹독서나 문자보급 운동으로까지 이어졌고 기관지 『동광』의 발행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얻기에 이른다. 김여제를 비롯한 홍사단 핵심 인사들의 회고에서도 언급되었듯<sup>3)</sup> 홍사단은 도서 구입 및 도서관 설립과 같은 사업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했다.<sup>4)</sup> 본 연구는 이 같은 홍사단의 사업 가운데 설립 초기에 해당하는 시기에 이들이 추진한 출판 사업, 그 가운데서도 도서 구입과 관련한 일련의 활동에 주목한다.

홍사단 창립자인 도산 안창호는 망명 이전에도 이미 국내에서 비밀결사체인 신민회와 그 부설 단체로 간주되는 청년학우회를 조직했다. 이 국내 단체들의 활동 역시 실력양성을 바탕으로 한 개인의 양성과 국권 회복에 목적을 두고 있었다.<sup>5)</sup> 특히 태극서관이나 청년학우회의 한성연회 도서종람소와 같은 기구들을 통해 서적 및 출판과 관련한 일을 적극

2) 박의수, 『도산 안창호의 생애와 교육사상』, 학지사, 2010; 박의수·이순복, 「홍사단 운동의 특징과 교육사적 의의」, 『한국교육학연구』 18권 3호, 2010, 293-314쪽; 유준기, 「미주지역에서의 안창호의 독립운동-1910년대를 전후한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38호, 2004, 149-169쪽.

3) 김여제, 「김여제가 최희송에게 보낸 편지」, 1931.2.9, 독립기념관 미주홍사단 자료 [http://www.i815.or.kr/data2/wonmon/meta\\_xml/1-H00164-000.xml](http://www.i815.or.kr/data2/wonmon/meta_xml/1-H00164-000.xml)

4) 장규식, 「1900~1920년대 북미 한인유학생사회와 도산 안창호」, 『한국근현대사연구』 46호, 2008, 105-146쪽.

5) 신용하, 「신민회의 건설과 그 국권회복운동」 상하, 『한국학보』 8, 9호, 1977, 31-75·125-188쪽; 윤경로, 『105인 사건과 신민회연구』, 일지사, 1990.

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태극서관은 대성학교와 함께 청년교육의 일환으로 설립되어 신민회의 회합 장소로 활용되었다. 한성연회 도서종람소 역시 청년학우회의 이념 중 지육(智育)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학우회 총무 최남선과 신문관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졌다.<sup>6)</sup> 흥사단의 출판 사업 중 하나인 도서 구입 역시 이러한 지육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활동으로 간주된다.

특히 ‘미주’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주목되는데, 그것은 병합 이후 국내의 제한적인 활동과는 다르게 전개되었을 가능성 때문이다. 국외에서 결성된 청년 단체의 도서 구입이 국내와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특수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될 필요가 있다. 요컨대 흥사단과 같이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청년을 중심으로 한 애국 단체가 어떠한 책을 구입하였는지에 대해 고찰하는 작업은 그 자체로도 의미 있지만 국내와의 차이를 살펴볼 비교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지금까지의 서적 유통에 관한 연구들이 주로 판매 도서 목록이나 서적 광고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감안한다면 도서 구입 장부는 대상만으로 고무적이다. 도서 구입 장부는 판매 도서의 목록이나 서적 광고와 달리 실질적인 구매 내역이라는 점에서 구매자들의 요구와 수요를 보다 직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어떠한 서적들을 얼마나 필요로 했는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데이터, 즉 실수요와 실거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이상 서술한 내용에 부합하기 위해 이 연구는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우선 도서 구입 장부의 구성을 살펴보고 장부에 기재된 서적명을 중심으로 서적 목록을 작성할 것이다. 도서 구입 장부는

6) 권두연, 「청년학우회의 활동과 참여 인물」, 『현대문학의 연구』 48집, 2012, 119-181쪽.

수기로 되어 있어 서적명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또 목록의 제명이 확인된 경우라도 당시 그러한 제목으로 유통되지 않은 책들이 있다. 따라서 이를 확인하고 가장 가능성이 있는 서적으로 확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구매 서적의 목록을 재구성하는 일은 단순히 어떠한 책을 구매했는지를 넘어, 구매 서적들의 성격과 분류를 통해 홍사단의 성격을 구명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서적 목록을 중심으로 홍사단과 같이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던 청년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애국단체가 어떠한 서적들을 구입하였는지 그 실태를 살펴볼 것이다. 이는 앞서도 서술했듯 ‘미주’라는 공간에서 활동한 청년 단체의 출판활동이 국내와는 다르게 전개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는 동시에 이후 홍사단이 추구한 이념적 지향과도 관련하여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하다. 나아가 이러한 작업은 국내 출판계와 연동하여 1910년대 서적 유통의 양상을 고찰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2. 도서 구입 장부의 구성

홍사단 도서 구입 장부는 독립기념관에 소장된 미주홍사단 자료이다. 홍사단 도서 구입 장부의 자료 소개에 의하면 “기증”의 목적으로 구매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sup>7)</sup> 기증을 목적으로 한 것 치고는 구입한 도서의 제목과 권수, 가격과 할인액, 우송료, 보험료 등이 지나치다 싶을 만큼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구매한 날짜, 구입처, 구입자 등 다양한 정보를 적고 있어 홍사단의 도서 구입 실태는 물론이고 향후 홍

7)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 <http://search.i815.or.kr> (자료번호 1-H01839-000)

사단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도 유용하다.

도서 구입 장부에 대해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장부는 7칸, 19줄로 구성된 서양식 노트로 표지를 포함하여 총 22쪽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지에는 “FROM\_\_\_\_\_19\_TO\_\_\_\_\_19\_”로 날짜를 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2쪽부터 총 18회에 걸친 구매 내역이 기록되어 있다. 다만 이 가운데 하나는 약 구매에 관한 것이므로 서적 구매는 총 17회이다.<sup>8)</sup> 17회에 걸쳐 실시된 도서 구입의 실태를 장부에 기재된 순서대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흥사단 도서 구입 장부 기재 순서별 내역

	날짜	구매자	구매처	종수	권수	금액/할인/총액	쪽수
1	4251.12.5	김영훈	표시없음 신문관추정	65	387	16947 (할인7235) 9712	2~4
2	4252.1.13	김영훈	신문관 야소교서회	44 4	286 52총338	22150 \$11075	5~6
3	4252.2.1	민찬호	표시없음	5	100	1700	7
4	4252.3.22	최진하	표시없음	2	6	260	7
5	4252.4.18	김항집	표시없음	그림엽서	78	1170	7
6	4252.6.18	민찬호	표시없음	3	145	3125	7
7	4252.6.24	표시없음	표시없음	1	50	1750	7
8	4252.8.15	최진하	표시없음	2	16	938	7
9	4252.4.12	표시없음	신문관	29	311	9310 1/2 \$4656	8~9
10	4252.7.1	표시없음	신문관	71	880	37495 \$18748	10~12
11	4253.4.12	표시없음	야소교서회	15	136	17375 \$8687 1/2	13
*	4253.6.9	표시없음	독립운동사				13
12	4253.9.18	표시없음	야소교서회	9	80	9279 \$4639 1/2	14
13	4253.9.18	표시없음	박문서관	14	139	10000 \$5000	15
14	4253.11.1	최진하	표시없음	4	4	170	16
15	4253.12.10	표시없음	박문서관	23	230	10069 \$5034	17
16	4253.12.17	표시없음	신문관	19	190	11550 \$5775	18
17	4253.12.31	표시없음	야소교서회	12	51	12079 \$6039 1/2	20

8) 〈표 1〉의 \*를 포함한다면 18회일 수 있겠으나, \*는 구입처와 구입 서적명, 구입 권수만 기재되어 있고 금액과 관련한 어떤 정보도 없기에 구매로 간주하기 어렵다.

〈표 1〉은 장부에 기재된 쪽수를 중심으로 순서대로 정리한 것이다. 날짜별로 1918년 12월 5일부터 1920년 12월 31일까지의 구매 내역을 구매자, 구매처, 구매한 서적 종수 및 권수와 금액으로 제시하였다. 도서 장부에 기재된 사항들을 대략 살펴보면 우선 연도는 단기(檀君紀元)를 사용하였고 구매 날짜를 표기해 두고 있다. 대체로 날짜순으로 제시되지만 9회와 10회에 해당하는 구매가 그 보다 시기적으로 늦은 5회와 8회 뒤에 기재되어 있음을 고려하면 7쪽에 기재된 내역들은 추후 기재되었거나 별도로 보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표 1〉에서 드러나듯 8회까지는 구입자명으로 구입한 서적을 기재하고 있고 9회부터는 구입자명이 사라지고 대신 출판사별로 구입한 서적명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구입한 이들을 중심으로 구매 내역을 기재하다 차차 구입처로 대체해 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구매 방식이 일정하게 자리 잡아 가면서 일어난 변화로 읽힌다. 다만 출판사가 아닌 인물들의 경우, 민찬호와 최진하는 특정 서적을 구매한 경향을 보이며 특히 이들이 구매한 서적에는 다른 데서 보이는 우송료나 보험료와 같은 정보들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로 미루어 이들은 국내 출판사를 통하지 않고 다른 경로를 통해 서적들을 구입한 것으로 짐작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후술하도록 한다.

도서 구입에 관여한 이들로 이름이 밝혀져 있는 인물은 김영훈(金永勳), 민찬호(閔贊鎬), 최진하(崔鎭河), 김항집(金恒集) 네 사람이다. 이들 중 김영훈은 홍사단 단우 75, 민찬호는 홍사단 단우 8, 최진하는 단우 73으로 등록되어 있다.<sup>9)</sup> 이로 보아 홍사단의 도서 구입에 관여하거나 활동했던 이들은 초창기 홍사단의 핵심 인물이거나 안창호를 중심으로

9) 이명화, 『홍사단 원동임시위원부의 인적 구성과 그 성격』, 『한국근현대사연구』 22, 2002, 부록 참조.

한 주요 인사들이었을 것으로 간주된다.

도서 구입 장부에 기재된 이들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은 김영훈이다. 그는 흥사단 도서 구입 장부의 서적 구매에 가장 활발하게 개입한 인물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김영훈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새크라멘토 교회의 담임 목사로 재임했고 흥사단 설립 무렵 한인소년서회를 경영하였다. 실제로 1918년 『신한민보』의 서적 광고에 (한인) 소년서회의 주무로 소개되고 있다. 그러니까 김영훈이 흥사단의 도서 구입에 관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한인사회에서 서적을 취급하는 일을 하고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서점을 운영하고 있었던 인물이었던 만큼 김영훈이 구입한 서적은 다른 이들에 비해 그 종수와 권수가 압도적이다. 2회에서 드러나듯 그는 출판사별로 서적을 구매했다. 그렇다면 구매처가 밝혀져 있지 않은 1회 역시 출판사 추정이 가능한데 신문관에서 발행한 자사의 서적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1회의 구매처 역시 신문관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민찬호는 서울 출신으로 배재학당을 다녔고 1905년 하와이 호놀룰루 한인교회 목회자로 초빙돼 동포들과 한인상조회(韓人相助會)를 조직했다. 1909년에는 하와이, 샌프란시스코에 국민회(國民會) 창설에도 참여했고 1913년 안창호 등이 흥사단을 만들 때 이사장으로 활동했던 인물로 흥사단의 각종 사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언급했듯 민찬호는 특정 서적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나는데 그가 구입한 서적들은 주로 『소본국문신약』이나 『비유요지』와 같은 기독교 관련 서적과 『한영회화』, 『연설법방』, 『월남망국사』와 같은 책들이다. 흥미롭게도 그는 기독교의 예화집인 『비유요지(譬喻要旨)』에 『안인거(安仁車)』를 더해 『증선비유요지』를 하와이한인교보사에서 출판한 편



찬자이기도 하다.<sup>10)</sup> 그렇다면 그가 구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비유요지』는 사실상 자신이 편찬한 『증선비유요지』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최진하는 평양 출신으로 1916년 미국으로 망명한 뒤, 미주지역의 대표적 독립운동단체인 대한인국민회에서 활동한 인물이다.<sup>11)</sup> 최진하 역시 민찬호와 마찬가지로 출판사를 경영하지 않고 특정 서적들 위주로 구매했는데 그가 구매한 서적 가운데 『기독교청년』이나 『신한청년』과 같은 동시기 동경과 상해에서 발행된 잡지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잡지들은 홍사단과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결성된 청년을 중심으로 한 단체들에서 발행한 기관지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이 밖에 그림엽서를 구매한 김항집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정보가 찾아지지 않는다.

주요 구매처는 신문관(新文館), 박문서관(博文書館), 야소교서회(耶蘇敎書會)이다. 신문관은 최남선이 형 최창선과 함께 운영한 출판사로 1910년대 단일 출판사로는 가장 많은 잡지와 조선광문회 고서들을 펴낸 곳이다.<sup>12)</sup> 홍사단이 구매한 서적의 종수는 대략 240여 종이 넘는데 이 가운데 70% 이상을 신문관에서 구입할 정도로 큰 비중이 차지한다. 신문관이 홍사단 서적의 주 구입처가 되었던 이유에는 안창호와 공통분모가 있는 청년학우회와의 관련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도 언급했듯 신문관의 편집자였던 최남선은 청년학우회의 총무였으며 신문관에서 발행한 『소년』은 청년학우회 기관지로 기능했다. 뿐만 아니라 신문관은 청년학우회의 임시 사무소 및 청년학우회가 실시한 한성연회 도서종람소의 서적 기부 및 보관 장소 등으로 이용되었기 때문이다.

출판사별로 구입 서적의 특징을 살펴보면 신문관에서 구입한 서적들

10) 조경덕, 「근대 단행서사의 '기독교 예화집' 수용 양상」, 『국제어문』 54집, 2012, 316-317쪽.

11) 이상 인물에 관한 정보는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참조.

12) 권두연, 『신문관의 출판 기획과 문화운동』,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6 참조.

은 대부분 신문관에서 발행한 자사 잡지와 단행본들이 주를 이룬다. 1910년대 발행된 잡지 중 가장 인지도가 높았던 『청춘』은 물론이고 이미 중단된 『붉은저고리』나 『아이들보이』와 같은 잡지들도 구매 목록에 있다. 특히 신문관에서 발행한 문예류에 해당하는 서적들은 거의 다 구매한 것으로 확인된다. 『고본춘향전』이나 『신교수호지』와 같은 고전소설과 육전소설, 세계문학 번역소설 시리즈, 하몽 이상협의 『무궁화』와 1918년에 단행본으로 출판된 춘원 이광수의 창작 장편인 『무정』 등 신문관에서 출판된 소설은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이 밖에도 최남선의 『신문독본』이나 『자조론』 등 당대 청년들에게 반향을 일으켰던 서적들을 비롯하여 재담집, 요리서, 『기보』, 『승경도』와 같이 실용과 오락을 목적으로 한 신문관의 대표 서적들이 망라되어 있다.

흥미롭게도 신문관에서 주력한 조선의 문화 및 사상, 종교와 관련한 학술서들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가령 『조선불교통사』나 『조선불교약사』, 『신단실기(神壇實記)』, 『삼일신고(三一神誥)』, 『선학입문(禪學入門)』과 같은 서적은 전혀 찾아지지 않는다. 이와 같은 특징들은 흥사단의 주요 독자들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간주된다. 다시 말해 흥사단 회원들이 주로 기독교 계열의 청년 및 학생이라는 점에서 학술과 종교, 특히 불교 및 대중교 서적들은 자연스럽게 배제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시기 대부분의 출판사들이 그랬듯 신문관 역시 자사 발행 서적 외에 다양한 서적을 발매했는데 신문관 판매 도서 목록인 『신문관발매총목록』에 열거된 서적들이 흥사단 도서 구입 장부에 대거 등장한다. 특히 논어, 맹자, 대학, 중용 등 사서삼경을 비롯한 이른바, “목록에 없는 고서들은 별도로 주문하라”<sup>13)</sup>는 서적들의 판매가 실제 이루어졌음이 이로써 확인된다. <표 2>에서 살펴보겠지만 『논어』나 『맹자』 같이 출판사나 출

13) 『주문시주의건』, 『신문관발매서적총목록』, 신문관, 1914, 2쪽.

판연도가 뚜렷한 몇 권을 제외하면 이들 경서에 대한 출판사향은 명확치가 않은데 적어도 신문관이 발매소였음은 분명해진 셈이다.

신문관에 이어 홍사단이 거래한 출판사는 박문서관이다. 박문서관은 근대 초기에 설립되어 1930년대에는 수필 전문 잡지인 『박문』을 간행하는 등 식민지기 대표 출판사 가운데 하나이다.<sup>14)</sup> 박문서관은 창업 초기에 다수의 교재들을 출간하였고<sup>15)</sup> 『월남망국사』를 필두로 초창기 자사에서 발행한 다수의 서적이 발매금지 되는 등 이 시기 금서조치로 탄압 받은 대표적인 서점으로 알려져 있다. 박문서관이 홍사단과 거래하게 된 배경에는 상동교회와 박문서관에서 활약한 노익형(盧益亨)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박문서관의 창업주인 노익형은 상동교회에서 운영한 공옥학교에서 사무를 보거나 체육교사로 활동했던 인물이다. 특히 그는 자사에서 출판한 최초의 서적인 『월남망국사』에 직접 서문을 쓰는 등<sup>16)</sup> 출판사주 이상의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로써 노익형과 그가 경영한 박문서관이 개화기 ‘신문화 수용’은 물론이고<sup>17)</sup> 교육 및 애국 사상의 고취에 일조했음은 분명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홍사단 도서 구입에 관여한 출판사는 야소교서회이다. 예상대로 야소교서회에서는 기독교 서적을 주로 다루었다. 야소교서회는 조선에 선교하러 온 개신교 선교사들이 성서뿐 아니라 기독교에 대한 각종 문서들이 시급히 필요하게 되면서 1890년 설립된 출판사이다.<sup>18)</sup> 홍사단 도서 구입 장부에 의하면 다른 종교 서적은 한 권도 없는 반면 성경, 찬송가의 구매는 빈번하며 무엇보다 구매 권수가 다른 단일 서적

14) 근대서지 편집부, 『博圖書館과 盧益亨 관련 자료 모음』, 『근대서지』 6호, 2012, 775쪽.

15) 방효순, 『박문서관의 출판활동에 관한 연구』, 『국회도서관보』 37권 5호, 2000, 66쪽.

16) 김종수, 『일제 식민지 문학서적의 근대적 위상-박문서관의 활동을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41집, 2011, 459-463쪽.

17) 이종연, 『책의 운명』, 해안, 2001, 376쪽.

18) 김봉희, 『한국 기독교문서 간행사 연구』, 이화여대출판부, 1987, 78쪽.

종수에 비하여 압도적이다. 이 외에도 『유몽천자』나 『사민필지』, 『천문략해』, 『천로역정』과 같이 초창기 선교사들에 의해 편찬된 다수의 서적들이 포함되어 있고 특히 영어와 관련한 사전과 문법, 회화 책들이 야소교서회를 통해 구입되었다.

마지막으로 언급해 두어야 할 사항은 구매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흥사단 도서 구입 장부에 “獨立新聞社”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표 1>에서 \*로 표시한 부분이 바로 그것인데, 장부에 의하면 4253년 즉 1920년 6월 9일 독립신문사에서 “『獨立運動의 眞狀』 五十冊”을 구매한 것으로 적혀 있다. 그런데 다른 서적과 달리 구매와 관련한 내용이 전혀 없다. 짐작컨대 이 도서 구입 장부가 기증의 목적을 지니며, 더욱이 기재된 서적이 상해에 있던 독립신문사로부터 독립과 관련한 것이었다면 이는 구매가 아니라 기증의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밖에 구입 도서의 권수와 가격, 총액과 할인액, 그리고 우송료와 보험료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표 1>을 참고하면 도서의 가격은 대체로 정가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총액은 원(₩)과 달러(\$)가 동시에 표시되어 있는데, 환율이 정확히 2배였음이 확인된다. 할인의 경우, 모든 도서에 일정하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총액에서 일정 금액을 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우송료와 보험료도 적혀 있다. 이처럼 도서 구입 장부에는 구입한 서적명뿐 아니라 당시 미국으로 보내는 우송료와 적용된 환율, 그리고 서적 배송에 적용된 보험료와 같은 내용들도 기재되어 있어 당시 생활상과 관련한 미시적인 정보도 알 수 있다.

### 3. 도서 구입 실태와 구입 도서 목록

언급했듯 도서 구입 장부는 필사된 자료라 서적명이 확실치 않다. 따라서 서적명의 확정 및 그 실태 조사가 시급히 요구된다. 홍사단에서 구입한 것으로 간주된 서적명을 바탕으로 목록을 일별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홍사단 도서 구입 장부 서적 목록<sup>19)</sup>

	제목	저·발행자	발행소	발행연도	대분류	소분류
1	가명보감	강의용	유일서관	1918	교재	여훈서
2	簡明教育學	유옥겸	우문관	1908	교재	교육학
3	갈소사전 蘇士傳	양계초/이보상	중앙서관	1908	문예	역사전기
4	강상괴우	이해조	동양서관	1912	문예	신소설
5	강상루	김이태	대창서관	1919	문예	고소설
6	江上月	미상 필사본	회동서관	1913	문예	고소설
7	開卷嬉々 開卷嬉嬉	우정거사	신문관	1912	문예/잡종	재담
8	改正初學捷徑	한승곤	광명서관	1912	교재	국어
9	고급잡가	박영균	동명서관/ 신구서림	1915	문예	잡가
10	고등산학신편	필하와/신해영	대한성교서회	1910	종교	기독교교재
11	고본춘향전	최남선	신문관	1913	문예	고소설
12	공문식	학부편집국	미상	미상	실용	
13	공산명월	박영운	박문서관	1912	문예	신소설
14	관운장실기	미상	광동서관	1917	문예	고소설
15	구마검	이해조	이문당	1908/ 1917	문예	신소설
16	구약스괴	蘇女論 (W.L.Swallen)	대한예수교 장로회	1910	종교	기독교교리
17	구약전서				종교	기독교경전
18	구운몽		유일서관/ 신구서림	1913	문예	고소설
19	구의산	이해조	신구서림	1912	문예	신소설
20	國家思想學	정인호	우문관(인쇄)	1908	교재	정치
21	국문신약				종교	기독교경전
22	국민독본	현재			교재	독본
23	國民儀範→ (보통교육)國民儀範	진희성	의진사	1908	교재	수신
24	國語文典→ 國語文典音學	주시경			학술교재	어학

25	국의향	조중환	유일서관	1914	문예	신소설
26	國際公法→ 國際公法志	박정동	일한도서인쇄 주식회사		학술교재	법학
27	권선기담				문예	재담
28	금강문	최찬식	동미서시	1914	문예	신소설
29	금국화	김용준	보급서관	1913	문예	신소설
30	금수회의의→ 금수회의록	안국선	황성서적업조합	1908	문예	번안소설
31	금지환	박영운	동양서원	1912	문예	신소설
32	기독교청년→ 기독교의 청년	김창제	신문관	1914	종교/수양	수신
33	기독교청년	조선기독교청년회	형빈복음인쇄 주식회사	1917.11 -19.12	잡지	기독교 청년잡지
34	碁譜	秘本	신문관/ 조선광문회	1912	실용/잡종	바둑
35	김진옥전		덕흥서림	1916	문예	고소설
36	김탁자전	최연택	매일신보연재		문예	고소설
37	羅馬史	현재	현공립발행소	1907	문예	역사전기
38	남훈태평가		신문관	1913	문예	시가
39	녀중호걸	미상	세창서관		문예	고소설
40	論語		대한서림	1909	경서	고서
41	農業大要	이각종	유일서관	1910	교재	농업
42	눈물	이상협	동아서관	1917	문예	신소설
43	능라도	최찬식	유일서관	1919	문예	신소설
44	단장록	조중환	유일서관	1917 (불명)	문예	신소설
45	大東詩選	장지연	신문관	1918	문예	시가
46	代數學教科書	김준봉	감리교회인쇄부	1908	교재	수학
47	大學				경서	고서
48	大韓歷史	정교			학술교재	역사
49	대한력스	힐버트 (H.B.Hulbert)	대한성교서회	1908	종교	기독교교재
50	더마무전		신문관	1914	문예	고소설
51	던우치전		신문관	1914	문예	고소설
52	도화원	최찬식	유일서관	1916	문예	신소설
53	도선리어	최원식	신문관	1913	사전잡종	속담
54	讀史新論	신채호	대한매일신보 연재	1908. 8. 27-9. 15/ 10. 29-1 2. 13	학술	역사
55	東國通鑑		조선광문회	1911	고서	역사

56	動物學/동물학	베어드 (Annie Baird)	대한야소교서회	1906	종교	기독교교재
57	東詩精選	전병규	예향서루	1917	문예	시가
58	洞庭秋月	민준호	청송당	1914	문예	신소설
59	독검전	미상	불명	불명	문예	고소설
60	디구의괴왕과장리	최남선	신문관	1909	학술	지구과학
61	디장보살	김교계	동양서원	1912	문예	번역소설
62	누터개교기략 路得開教記→ 路得改教紀略	게일(J.S.Gale)	광학서포	1908	종교	기독교전기
63	류충렬전	미상	덕흥서림/ 세창서관	1913	문예	고소설
64	리대봉전	미상	박문서관	1914	문예	고소설
65	리택실기		세창서관	1915	문예	고소설
66	림경업실기				문예	고소설
67	림호은전		유일서관	1915	문예	고소설
68	만월대	이해조	동양서원	1910	문예	신소설
69	만인계	옛지워쓰	신문관	1912	문예	번안소설
70	말의소리	주시경	신문관	1914	교재	학술 국어
71	孟子		대한서림/ 광학서포	1909	경서	
72	명사십리		미상	1918	문예	고소설
73	모험기담→ 허풍선이모험기담	문하우센	신문관	1913	문예	번역소설
74	목단병→모란병	이해조	박문서관	1911	문예	신소설
75	목단봉			1913	문예	신소설
76	목단화	김교계	광학서포	1911	문예	신소설
77	蒙學二千字		회동서관	1912	교재	국어
78	무궁화	이상협	신문관	1918	문예	신소설
79	無先生英語獨學	장두철	신구서림	1917	교재	영어
80	無情	이광수	신문관	1918	문예	근대소설
81	박문수전/朴文秀전	미상	박문서관	1919	문예	고소설
82	박씨전	미상	한성서관	1915	문예	고소설
83	방화수류정	김원길	박문서관	1920	문예	신소설
84	百年恨	고유상	회동서관	1913	문예	고소설
85	伯林巴里	현공렴	동미서시	1915	문예	역사전기
86	박학선전		신구서림	1915	문예	고소설
87	法蘭西新史	현재	홍학사	1906	문예	역사전기
88	별주부전	이해조개작	신구서림	1913	문예	판소리개작

19) <표 2>는 홍사단 도서 구입 장부에 기재된 서적명을 가나다순으로 정렬한 것이다. 서

89	普吾士七年戰士→ 普魯士國厚禮斗益 王七年戰史	유길준	광학서포	1908	문예	역사전기
90	本國史略→初等本 國略史로 간주					
91	봉황덕	이대봉전이본	유일서관	1912	문예	고소설
92	불상한동무	최남선역	신문관	1912	문예	번역소설
93	붉은저고리	최남선편	신문관	1913	잡지	아동잡지
94	비유요지→ 증선비유요지	민찬호 편	조선야소교서회 /하와이한인 교보사	1910	종교	기독교교리
95	비파성	이해조	신구서림	1913	문예	신소설
96	빈상설	이해조	광학서포	1908	문예	신소설
97	事物紀元歷史→ 萬國事物起源歷史	장지연	황성신문사	1909	교재	역사
98	士民必知	헐버트 (H.B.Hulbert)		1895/6	종교	기독교교재
99	사씨남정기	김만중	신문관	1914	문예	고소설
100	사촌몽	미상	광학서포	1917	문예	신소설
101	山林經濟	홍만중	회동서관	1918	고서	농서
102	삼설기		신문관	1913	문예	고소설
103	三國史記		조선광문회	1914	고서	역사
104	三國志		보성관	1913	문예	고소설
105	생리학교과서	안상호	의진사	1909	교재	생리학
106	쌍옥루	조중환	보급서관	1913	문예	신소설
107	쌍옥적	이해조	보급서관	1911	문예	신소설
108	서상기		대동서시	1906	문예	고소설
109	西洋史教科書				교재	역사
110	西○습효					
111	書傳	남궁준 편	유일서관	1912	경서	
112	선영문법/鮮英文法	언더우드 (H.G.UnderWood)	조선야소교서회	1915	교재	영어
113	소대성전		신구서림/ 박문서관	1917	문예	고소설
114	小本新찬송가					
115	소운전		덕흥서림/ 박문서관	1917	문예	고소설
116	笑天笑地	장춘도인	신문관	1918	문예	고소설
117	小學				경서	
118	손방연의		세창서관/ 회동서관	1915/ 1918	문예	고소설



119	松竹	김영한	동미서시	1914	문예	신소설
120	슈양제형략기		창문당	1918	문예	고소설
121	숙영낭자전		한성서관/ 신구서림	1915	문예	고소설
122	숙향전		덕흥서림/ 세창서관	1914	문예	고소설
123	승경도	명선	신문관	1912	잡종	
124	時文讀本	최남선	신문관	1916/ 1918	문예	독본
125	詩傳				경서	
126	식물학/植物學	베어드 (Annie Baird)	대한야소교서회	1906	종교	기독교교재
127	신교수호지		신문관	1913	문예	고소설
128	신구유행잡가	강의영	세창서관	1915	문예	잡가
129	신약전서	성서번역위원회	대영성서공회	1906	종교	기독교경전
	신약전서 관주	성서번역위원회	대영성서공회	1911	종교	기독교경전
130	신옥전/관주				사전	
131	신자전/新字典	유근 외	조선광문회	1915	사전/학술	
132	新訂育兒法	김연매 편		1913	교재	교육학
133	신편동물학→ 新撰動物學	신해영	회동서관	1908	교재	동물학
134	新編尺牘→ 新撰尺牘大方		신구서림	1919	교재/실용	독본
135	신편포은집	박남철, 최문현 편	송양서원	1914	고서	
136	신한청년	이광수	신한청년당	1919.12	잡지	
137	實用作文法→ 實用應用作文法	최재학	휘문관	1909	교재	어학
138	심청전	미상	광동서관/신구 서림/신문관	1912	문예	고소설
139	十三道遊覽→ 大韓十三道遊覽	정은모	옥호서림	1909	문예	기행
140	雅言覺非	정약용	조선광문회	1912	고서	
141	아이들보이	최남선	신문관	1913.8~ 14.9	잡지	
142	안의성	이해조	박문서관	1914	문예	신소설
143	樂典大要	홍난파	박문서관	1916	문예	시가
144	仰天大笑		박문서관	1914	문예	재담
145	양산백전		유일서관	1915	문예	고소설
146	양풍운전		한성서관	1915	문예	고소설
147	言文	지석영	광학서포	1909	학술교재	어학

148	언문편지투		영풍서관	1917	실용	
149	연설법방	안국선	일한인쇄 주식회사	1907	학술교재	수사
150	연설초집	밀너(F.S.Miller)	조선야소교서회 /맹인교육연구회	1913	종교	기독교교재
151	英語文法				교재	어학
152	英語入門				교재	어학
153	英韓字典	존스			사전	
154	英語自通→ 무선생영어자통				교재	어학
155	五百年奇譚	최동주	광학서포	1913	문예	재담
156	옥루몽	남영로	신문관	1912	문예	고소설
157	옥린몽		광익서관	1918	문예	고소설
158	옥중가인		신구서림	1914	문예	신소설
159	옥중화	이해조	보급서관	1912	문예	판소리 개작소설
160	外交通義	안국선	보성관	1907	교재	정치
161	料理製法/料理法 →조선요리제법	방신영	신문관	1918 (재판)	실용	
162	원앙도	이해조	동양서원	1911	문예	신소설
163	원앙의상사	신구영	청송당서점	1916	문예	신소설
164	월남망국사		보성관	1906	교재	역사전기
165	월하가인	이해조	보급서관	1914	문예	신소설
166	위인린권	장도빈	신문관	1917	문예/수양	전기
167	위인원효	장도빈	신문관	1917	문예/수양	전기
168	유몽천자	게일(J.S.Gale)	대한야수교서회	1904	종교	기독교교재
169	을밀티	이민한	대창서원/ 보급서관	1918	문예	신소설
170	應用商業簿記	김대희	의진사	1909	교재	상업
171	伊太利獨立史	김덕균	박문서관	1907	문예	역사전기
172	自習簡牘→ 袖珍自習簡牘	장도빈	신문관	미상	교재/잡종	독본
173	自助論 上	최남선	신문관	1918	학술수양	
174	장국진	미상	동아서관	1916	문예	고소설
175	장빅전	미상	덕흥서림	1915	문예	고소설
176	장한몽	조중환	조선도서 주식회사	1916	문예	번안소설
177	적성의전		세창서관	1914	문예	고소설
178	絶倒百話	원석노인	신문관	1912	문예	재담
179	절처봉생		박문서관	1914	문예	신소설

180	조선년표	장도빈	경성도서 주식회사	1921	연표	역사
181	조선○○○→ 조선어문법	주시경	박문서관	1908	교재	국어
182	朝鮮文典	유길준	필사본	1897~19 04추정	학술/교재	어학
183	조선유람도		광학서포	1917	문예	지도
184	조용전	미상	덕흥서림	1914	문예	고소설
185	조한립전				문예	고소설
186	周易				경서	
187	중등만국지지		학부편집국	1902	교재	세계지지
188	中庸				경서	
189	地文學→中等地文學	윤태영	보성관	1907	교재	지구과학
190	찬송가/곡보				종교	기독교경전
191	찬송가합부신약전서				종교	기독교경전
192	창가집	안애리	대한야소교서회	1915	종교	기독교교재
193	창선감의록	조성기(추정)	신구서림	1914	문예	고소설
194	채봉감별곡	미상	박문서관	1913	문예	고소설
195	尺牘完編	김우균	동문서림	1905	교재	독본
196	天桃花	미상	덕흥서림	1915	문예	고소설
197	天文략희	배위량	대한야소교서회	1908	종교	기독교교재
198	千秋怨		동미서시	1918	문예	신소설
199	青春	최남선	신문관	1914.10 -18.9	잡지	
200	초등식물학	정인호	옥호서림	1908	교재	식물
201	초학언문	미스 존스	광명서관	1909	종교	기독교교재
202	최도통전	신채호	대한매일신보 연재	1909.12. 5~1910. 5.27	문예	역사전기
203	最迅速算術教科書→ 최신산술교과서				교재	수학
204	츄월색/秋月色	김교제	회동서관	1912	문예	신소설
205	추풍감별곡	지송옥	신구서림	1913	문예	고소설
206	추풍감수록	이해조	동양서원	1912	문예	신소설
207	춘외춘	이해조	신구서림	1912	문예	신소설
208	치악산	이인직	유일서관	1908	문예	신소설
209	티모위생	A.M.Sharrocks	조선야소교서회	1908	실용	기독교교재
210	턴로력명	게일(J.S.Gale)	삼문출판사	1893	종교	기독교교리
211	通鑑諺解	지송옥	성문사인쇄	1914	고서	
212	파도상선	고유상	회동서관	1913	문예	소설
213	八道才談集		영창서관	1918	문예	재담

214	평양수십가				문예	시가
215	彼得大帝→ 彼得大帝傳	김인옥	광학서포	1908	문예	역사전기
216	漢水대전		대창서원	1918	문예	고소설
217	한영자전/韓英字典	언더우드 (H.G.UnderWood)	횡빈복음인쇄 주식회사	1890	사전	영어
218	한영회화	존 로스		1874	교재	영어
219	한월 상하/恨月			1908	문예	신소설
220	합부신약				종교	기독교경전
221	히당화	박현환	신문관	1918	문예	번역소설
222	항략도	행략도전	동양서원	1912	문예	신소설
223	憲法要意		옥호서림	1906	학술	법학
224	현미경	김교계	동양서원		문예	신소설
225	형데	심천풍	덕흥서림	1917	문예	신소설
226	홍경래실기	남약주인	신문관	1917	문예/잡종	고소설
227	홍길동전		신문관	1913	문예	고소설
228	홍도화	이해조	유일서관	1908	문예	신소설
229	紅淚池	이종린	회동서관	1917	문예	신소설
230	홍문연				문예	고소설
231	紅白花→홍백화전		영창서관	1917	문예	고소설
232	화용도실기				문예	고소설
233	花의血	이해조	보급서관	1912	문예	신소설
234	花中王	김교계	영창서관	1919(?)	문예	고소설
235	會社法	김상연	황성신문사	1907	교재	경제
236	孝經				경서	
237	훈몽자회	최세진	조선광문회	1913	고서	어학
238	홍부전		신문관	1912	문예	고소설
239	○○통문→ 경제통문으로 추정					
240	Korea Fact and Fancy	알렌		1904	문예	
241	Korean ○○○○○					
242	獨立運動의眞狀					

\* 표의 ○표시는 판독불가를 가리킴.

\*\* 표의 /표시는 출판사 신문관의 도서 분류임.

적명은 장부에 기재된 표기를 원칙으로 하였다. 출판과 관련된 저자 혹은 발행자 및 발행소, 발행연도는 연구자가 전수 조사하여 기입한 것이다. 이 가운데 출판사항이 불분명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빈칸으로 두었다. 서적명이 불분명한 경우 구입 장부에 기재된 제목의 옆에 따로 표시해 두었다. 한편 검색되지 않는 서적들도 있어 이 역시 가장 근접한 제목을 옆에 표기해 두었다. 향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가나다순으로 기입된 위의 <표 2>에 의하면 『가정보감』에서부터 영어로 된 서적까지 242종의 다양한 서적을 구입했다. 서적의 출판 상황을 참고하여 크게 대분류와 소분류로 범주를 구분하고 서적의 성격에 따라 경서, 고서, 학술, 문예, 실용, 교재, 종교 서적으로 세분화했다. 사전과 연표, 잡지도 따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분류는 당시 신문 및 잡지 등 매체의 서적 광고 및 출판사들의 판매 목록을 참고한 것으로 오늘날 도서 분류와는 차이가 있다.<sup>20)</sup>

비율별로 살펴보면 문예서 55%, 교재 15%, 종교서 9%가 전체 80%를 차지한다. 그 외 경서와 고서, 학술과 실용, 사전류 등이 나머지 20%이다. 경서와 고서를 구분한 것은 서적의 특성상 전자는 주로 사서삼경에 해당하는 서적류로, 후자는 근대에 들어 새롭게 활자화된 조선의 한적으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재담집이나 시가류도 대분류인 문예류에 포함시켰으나 그 서적의 형태적 특징상 소분류로 따로 구분하였다. 소설 역시 다양한 양식으로 구분되어 그 하위 범주 역시 여러 갈래로 나누었다. 교재는 주로 학교에서 사용되었거나 교재로 사용할 목적을 가지고 제작된 것만으로 한정하였다. 독본이나 『월남망국사』와 같은 서적 역시 학교 교재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하지만 독본은 그 형태상 독본류로 따로 구분하였고, 『월남망국사』 역시 역사전기에 포함시켰다.

20) 일반적으로 이 시기 서적은 전근대의 경사자집으로 분류되지도 않으며 근대 이후 도서분류법인 십진법과도 다소 다르게 전개된 측면이 있다. 따라서 표의 분류는 근대 서적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분류를 따르되, 여러 사항을 참조했다. 서적 분류에 참고한 선행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오윤선, 「신소설 서지 데이터베이스의 분석과 그 의미」, 『우리어문연구』 25집, 2005, 549-584쪽; 최호석, 「활자본 고전소설의 총량에 대한 연구」, 『고전문학연구』 43, 2013, 245-294쪽; 한명근, 「개화기 신서적 발간과 그 특징」, 『송실사학』 20, 2007, 15-46쪽; 황영원, 「근대전환기의 서적과 지식체계 변동」, 『대동문화연구』 81집, 2012, 321-345쪽; 김봉희, 『한국개화기서적문화연구』, 이대출판부, 1994 참조.

우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문예류부터 살펴보면 문예류는 시가집과 재담집, 그리고 소설로 범주화 된다. 시가집으로는 『고금잡가』, 『남훈태평가』, 『대동시선』, 『동시정선』, 『신구유행잡가』, 『악전대요』, 『창가집』, 『평양수심가』 총 8권이 있다. 전통적인 시를 모은 『대동시선』과 『동시정선』과 같은 시선집을 포함해 당시 유행하던 유행가, 창가, 잡가 등 다양하다. 특히 『대동시선』이나 『동시정선』은 전근대 시기의 시가들을 정리한 서적으로 의의가 크다. 『남훈태평가』는 신문관에서 펴낸 육전소설 가운데 한 권으로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시가집이다. 재담집은 『개권희희』, 『절도백화』, 『소천소지』, 『권선기담』, 『양천대소』, 『팔도재담집』 총 6권이다. 이 가운데 『개권희희』, 『절도백화』, 『소천소지』는 모두 신문관에서 발행한 재담집 시리즈이다.

마지막으로 문예류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소설이다. 특히 소설은 역사전기, 신소설, 고소설, 번안 및 번역소설, 근대소설, 판소리개작 등으로 다양할 뿐 아니라 구매향수나 권수 역시 월등하다. 흥미로운 것은 신소설이 54종, 구활자본 고소설이 49종으로 둘의 비중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1910년대는 1900년대의 소설개량에 따른 애국 계몽적인 소설들이 위축되면서 대신 훨씬 다양한 소설들이 등장한다. 물론 “통속화의 증장(增長)”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힘든 면은 있지만<sup>21)</sup> 이 시기에는 신소설뿐 아니라 번안과 번역, 근대소설은 물론이고 이전 시기의 한문소설이나 고소설들을 변용한 판소리 개작 소설이나 구활자본 고소설들이 우후죽순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흥사단 도서 구입 장부에서 구활자본 고소설이 신소설과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1910년대의 이러한 경향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

21) 임화가 『개설 신문학사』에서 “통속성의 현저한 증장”이라고 표현한 데서 차용한 것이다. 임규찬·한진일, 『林和 新文學史』, 한길사, 1993, 297쪽.

다. 그렇지만 이는 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품성을 지닌 서적의 경우이고, 당시 청년들의 독서 행태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현상이라 흥미롭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도록 한다.

교재는 문예류 다음으로 많은 종수를 차지하는 분야로 교육학에서부터 경제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 가운데는 당시 보성학교나 휘문 의숙과 같은 곳에서 실제 교재로 활용된 서적들도 있으며 기독교 계열의 미션스쿨에서 사용되거나 선교사들이 편찬한 교재들도 다종 포함되어 있다. 특히 통감부와 총독부의 방침에 따라 사립학교에서 불인가된 교과서들도 상당하다.

종교서적으로는 불교나 대종교 서적들은 한 권도 없었던 반면 기독교 서적들은 10%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하다. 특히 성경과 찬송가는 압도적인 횡수와 부수를 차지한다. 성경은 총 9차례에 걸쳐 126권을, 찬송가는 같은 차례로 180권을 구매하였다. 서적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구약은 『구약사기』와 『구약전서』, 신약은 『국문신약』, 『(관주)신약전서』, 찬송가와 합본된 『찬송가합부신약전서』, 『합부신약』 등이며 특이하게도 책자의 크기별로 『소본국문신약』, 『극소본국문신약』, 『중본국문신약』 등 다양한 형태의 성경들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난다. 찬송가는 『찬송가합부신약』, 『찬송가합부신약(마한)』, 『찬송가합부신약전서』, 『곡보찬송가』 등 신약전서와 합본으로 제작되거나 곡보를 포함한 형태로 거의 10회 가까이 구매되었다.

이 밖에도 루터의 『로득개교기』, 『증선비유요지』, 『천문략해』, 『천로역정』, 『유몽천자』, 『연설초집』, 『초학언해』, 『사민필지』 등 선교사들이 편찬한 한글 교재나 기독교 교리를 전파하기 위한 다양한 문학서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유몽천자』, 『초학언해』, 『천문략해』 등, 일련의 한글 교재의 편찬은 기독교 전파를 위해 초창기 기독교인들이 성경의

번역과 함께 활발하게 작업한 결과물이다. 이와 더불어 『태모위생』이나 『고등산학신편』, 『동물학』, 『식물학』, 『한영자전』 등 선교사들에 의해 편찬된 다양한 분야의 학술 및 교재와 사전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로써 흥사단이 종교적 색채를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기독교를 기반으로 결성된 단체임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독본은 근대 초기 가장 성행한 서적류 가운데 하나이다. 흥사단 도서구입 장부에 기재된 독본으로는 『국민독본』, 『척독완편』, 『자습척독』, 『신편척독』, 『시문독본』 등이 있다. 또 한문과 어학 공부에 필수였던 『신옥전관주』나 『신자전』과 같은 자전류와 영어 공부에 필수였던 『영한자전』 및 『한영자전』, 그리고 전래되어 온 조선의 속담을 수집하여 엮은 『조선리언』까지 다양한 사전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한글과 한자, 영어와 같은 문자 공부에 필요한 서적들이 주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일본어로 된 교재나 서적들은 전무하다. 일본어 사전 역시 보이지 않는다.

사서삼경에 속하는 『논어』, 『대학』, 『맹자』, 『중용』, 『서전(서경)』, 『시전(시경)』, 『주역(역경)』과 『소학』, 『효경』 등 9권의 경서가 구매목록에서 보인다. 흥미로운 것은 『노자』나 『장자』와 같은 서적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조선의 한적에 속하는 고서는 『삼국사기』, 『아언각비』, 『훈몽자회』, 『신편포은집』 총 4권인데 이 가운데 근대 초기 개성문인들을 중심으로 간행된 『신편포은집』<sup>22)</sup>을 제외한 나머지 세 권은 모두 조선광문회에서 발행한 서적들이다.

잡지로는 『기독교청년』, 『붉은겨고리』, 『아이들보이』, 『청춘』, 『신한청년』으로 신문관 발행 잡지 3종과 기독교 잡지 1종, 신한청년당의 기관지 1종으로 총 5종의 잡지가 구매되었다. 이 가운데 『청춘』이 7회 이상으로

22) 노관범, 『근대 초기 개성 문인의 지역 운동』, 『한국사상사학』 49권, 2015, 253-299쪽.



가장 많은 횡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서적이 모두 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잡지들이었다는 점에서 홍사단이 추구한 이념들의 성향을 잘 드러낸다. 특히 1919년 12월 상해에서 이광수를 중심으로 발행된 잡지 『신한청년』의 구독은 향후 홍사단의 향방을 알려주는 중요한 하나의 단서로도 이해될 수 있어 흥미롭다. 1913년 창립초기 미주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홍사단이 1920년 이후 원동지부를 결성해 그 활동지를 넓혀 가기 때문이다.

구매한 횡수별로 살펴보면 2회 이상 구매한 서적은 총 40종이다. 문예류에는 『개권희희』, 『소천소지』, 『절도백화』, 『창가집』, 『고본춘향전』, 『심청전』, 『별주부전』, 『박무수전』, 『명사십리』, 『십삼도유람』, 『양산백전』, 『홍경래실기』, 『홍부전』, 『쌍옥루』, 『구의산』, 『금국화』, 『능라도』, 『월하가인』, 『안의성』, 『추월색』, 『한월』, 『만인계』, 『모험기담』, 『무궁화』, 『무정』, 『불상한 동무』로 26종이, 교재로는 『고등산학신편』, 『실용작문법』, 『국민독본』, 『서양사교과서』, 『농업대요』, 『대한력사』, 『식물학』, 『자습간독』의 8종이 있다. 이 밖에 실용서로 『언문편지투』, 『요리법』 2종이, 『자조론』, 『중용』, 『비유요지』, 『한영자전』으로 수신과 경서, 기독교 예화집, 사전 등이 각 1종씩으로 드러난다.

3회 이상 구매한 서적은 『공산명월』, 『구운몽』, 『단장록』, 『홍도화』, 『해당화』, 『한영회화』, 『선영문법/鮮英文法』, 『新字典』 8종이다. 이 가운데 소설이 5종, 어학이 3종이다. 이 역시 소설이 가장 많은 종수를 보이고 있으며 영어권 국가라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영어와 관련된 서적들이 많이 구매되었음을 드러낸다. 흥미로운 것은 어학 두 종 가운데 『신자전』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한글과 영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었던 홍사단원들에게도 한문 학습을 위한 자전은 여전히 필요했음을 알 수 있다.<sup>23)</sup>

기입한 사람이 달라서였는지, 해당 서적의 표기가 이중으로 유통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목록에서 동일한 내용의 서적 표기가 다르게 적힌 것들도 있다. 가령 『식물학/植物學』, 『십삼도유람/十三道遊覽』, 『자습간독/自習簡牘』, 『박무수전/朴文秀傳』, 『추월색/秋月色』, 『한월/恨月』, 『料理法/料理製法』 등이 대표적이다. 당시 서적 제목에 한글과 한자를 동시에 표기한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후자일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다른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가령 『대한역사』의 경우 정교가 편찬한 『大韓歷史』와 선교사인 헐버트가 저술한 『대한력스』의 경우처럼 순한글과 국한문으로 각각 출판된 전혀 다른 서적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서적명이 일치하지 않거나 분명치 않은 서적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요리법과 같은 서적은 방신영의 『조선요리제법』으로 추정된다. 『동물학』이나 『식물학』의 경우도 이 시기에 같은 제목의 서적들이 상당히 많이 간행되었고 『자습척독』과 같은 서적 역시 『수진자습척독』 등 유사한 제목들이 있어 확정하기가 수월치 않다. 우선 시기와 출판사, 그리고 구입한 단체의 성격을 고려하여 가장 가능성이 있는 서적들로 선정하였으며 『신한민보』의 서적 광고를 참고하여 일치하는 서적들은 그대로 두었다.<sup>24)</sup>

흥사단이 구입한 도서의 실태 조사를 통해 서적 목록을 작성하고 구

23) 이를 방증하듯 미주흥사단 자료에는 「국한문신옥편」을 구하니 보내달라는 청원서가 있다. [http://www.i815.or.kr/data2/wonmon/meta\\_xml/1-H01466-000.xml](http://www.i815.or.kr/data2/wonmon/meta_xml/1-H01466-000.xml)

24) 이 시기에 해당하는 『신한민보』의 서적 광고를 활용하였다. 『신한민보』는 〈본사서적〉과 〈소년서회광고〉를 통해 서적명과 정가에 대한 정보들을 알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본사서적〉의 경우에는 서적의 내용과 관련한 정보들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지금까지 『신한민보』에서 광고하는 있는 서적들은 미주에서의 출판활동으로 간주되어 왔기에 국내의 출판 상황과 관련하여 논의되지 않았다. 여기에 대해서는 4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미주에서의 출판 활동에 대해서는 김영란, 「미주 초기 이민의 출판 활동에 관한 연구」,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2011 참조.

입한 도서의 분야별 비중과 특징들을 살펴보는 것은 기초적인 작업이지만 홍사단이라는 단체를 넘어 몇 가지 점에서 보다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것은 조선에서 미국으로 '이동'한 서적의 구체적 실태를 보여 줄 뿐 아니라 이동한 서적들의 존재라는 문제를 남기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4. 구입 도서의 성격과 '미주'리는 공간

1910년대는 통감정치에서 총독정치로 정치체가 바뀐 시대이니 만큼 그에 따른 상당한 변화들이 야기된다. 출판과 관련한 가장 큰 변화는 애국, 계몽서적의 축소 및 절멸이다. 검열과 각종 금서 조치에 따른 일이기도 했지만 신채호, 박은식을 비롯한 이 시기 주요 논객들이 망명하면서 실질적으로 국내에서의 언론과 출판은 그야말로 공황상태에 빠지게 된다.<sup>25)</sup> 독서 시장의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문학 역시 최원식과 한기형이 지적했듯 총독부의 입맛에 맞춰지고 대중을 위한 값싼 위로의 문학 일변으로 조정되었다.<sup>26)</sup> 1910년대가 구활자본 고소설과 신소설, 번안소설의 시대가 된 것은 이러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홍사단 도서 구입 장부에서 문예류가 구매 서적의 50% 이상을, 그 가운데서도 소설의 비중이 압도적인 것은 바로 이를 방증한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구활자본 고소설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홍사단의

25) 이 시기 검열 및 금지처분 도서에 관해서는 이중연, 『'책'의 운명: 조선-일제강점기 금서의 사회·사상사』, 혜안, 2001;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한국문학연구소 편, 『식민지 시기 검열과 한국 문학』, 동국대출판부, 2010 참조.

26) 최원식, 『장한몽과 위안으로서의 문학』, 『민족문학의 논리』, 창작과비평사, 1982; 한기형, 『한국 근대소설사의 시각』, 소명, 1999 참조.

도서 구입 장부가 작성될 당시인 1918~1920년 국내에서는 이미 변안소설이나 신소설의 인기가 한풀 꺾이고 새로운 소설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목록에서 보이는 『무정』과 『해당화』가 그 대표적 사례인데, 창작 장편소설과 본격적인 세계문학이 변안이 아닌 번역의 형식으로 선보이기 시작했고 이는 이전까지의 소설 독자와 다른, 학생과 지식인 청년이라는 새로운 독자층을 견인하기에 이른다.<sup>27)</sup>

구활자본 고소설은 바로 이 대척점에서 새롭게 등장한 부류이다. 이전 시대의 전통적인 이야기들을 활자본으로 새롭게 인쇄하여 시장에 내놓음으로써 고소설의 부흥을 꾀하고자 했던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소설들의 독자층이 기존에는 부녀자나 하층민들에 국한된 것으로 간주되었다는 데 있다. 앞서도 언급했듯 학생들과 지식인 청년들에게 읽히는 소설이 아니었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 동시기 『청춘』과 같은 청년 잡지에서 보여준 이른바 소설을 읽지 않는 일군의 청년들과 달리 흥사단은 신소설, 고소설 가릴 것 없이 각종 다양한 소설들을 구매하고 있었다. 흥사단과 같은 청년 단체에게 이토록 많은 소설, 특히 구활자본 고소설들이 읽혔다는 점은 여러모로 흥미롭다.

흥사단 도서 구입 장부가 보이는 이러한 현상은 청년 단체의 서적이란 점에서 청년학우회가 실시한 한성연회 도서종람소의 기부 서적들과 확연히 차이난다.<sup>28)</sup> 청년학우회에 기부된 서적에는 영어나 일어, 중국어로 된 소설은 있을망정 한글로 된 국문소설은 단 한 권도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기부와 구매라는 차이가 있고 시기적으로도 10년 정도의 간격이 존재하지만 적어도 안창호를 중심으로 결성된 청년 단체라는

27) 이러한 경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글이 『청춘』에 게재된 「大例外를 發見함-『불상한 동무』의 독자에게서」, 『청춘』 14호, 신문관, 1918.6, 104쪽.

28) 권두연, 「근대 초기 유통 서적 연구-청년학우회 한성연회 도서종람소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55, 2015, 203-252쪽.

점에서 이 차이는 미주라는 공간에서의 서적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제기한다.

서적의 구입과 매체의 구독은 독서로 이어지고 독서 활동은 말할 것도 없이 사용 문자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주지하듯 이 시기는 국문과 한문, 국한문이 혼용되던 시기였고 홍사단은 미주에서 활동했던 단체였던 만큼 영어의 비중이 높았을 것이다. 그런데 홍사단 도서 구입 장부의 서적 목록들을 살펴보면 한문이나 국한문으로 된 서적에 비해 한글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몇몇 교재와 국한문으로 된 소설들을 제외하면 한글로 된 서적이 다수를 차지한다. 물론 한글 서적의 비중은 1900년대 중후반 이후 급속도로 증가하며 이 시기 등장한 국내 신문이나 잡지들 역시 매체 언어로 국한문과 한글을 거의 동시에 사용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여전히 국한문의 비중이 우세했고 임형택이 지적했듯 1920년대까지도 이 같은 양상은 지속되었다.<sup>29)</sup>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국한문 서적과 한글 서적의 비중 역시 비슷하거나 국한문 서적이 우세할 법하지만 홍사단이 구입한 도서 목록의 상당수는 한글 소설 및 한글로 된 서적들로 채워져 있다. 물론 사서삼경으로 된 경서와 『아언각비』와 같은 고서도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부류의 서적은 손에 꼽을 정도이며 이들을 제외하면 순한문으로 된 서적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리고 당연한 것처럼 들리지만 영어와 관련한 학습서나 사전, 그리고 한국에 관한 서적들은 다수 포함되어 있는 반면 일본어 학습서 및 일본어로 된 서적은 단 한 권도 없다. 이는 앞서 살펴본 청년학우회의 기부 도서와 더불어 국내 서적 유통과 다르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29) 임형택은 소설에서조차 근대적인 문체라 할 수 있는 어문(한글)의 실현은 염상섭과 현진건의 비롯한 근대 작가들에 와서야 가능해진다고 보고 있다. 임형택, 『소설에서 근대어문의 실현 경로-동아시아 보편문어에서 민족어문으로 이행하기까지』, 『대동문 화연구』 58집, 2007, 24쪽.

다. 이미 1905년 이후 국내에서 일본어 서적에 대한 수요는 급증했으며 청년학우회에 기부된 서적의 반 이상도 일본어로 되어 있을 정도이다. 강제 병합 이후에는 와세다 대학이나 도쿄 사범대학의 통신강의록 등 일본대학에서 발행한 통신교재들의 인기까지 더해져 일본어 서적에 대한 의존도는 상당히 높았다. 그렇다고 이 시기 미주 한인들 사이에서 일본어에 대한 필요성이 전혀 없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신한민보』의 서적 광고의 목록에는 『일한회화사면』이 올라와 있고 서적명 아래에 “(일본말)”이라고 표기해 두기 때문이다.<sup>30)</sup>

홍사단 도서 구입 장부에서 목격되는 가장 큰 특징은 금서 처분된 서적들의 유통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통감부는 이미 강제 병합 이전에 출판법에 의거하여 국내 서적을 압수, 판매 금지시켰다. 1909년 압수된 대표적 서적이 『월남망국사』와 『금수회의록』이다. 앞서 언급한 박문서관의 노익형은 향후 “지금은 이야기할 자유들이 없는 서적”들을 출판하여 압수되었다고 회고한 바 있는데 『월남망국사』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박문서관의 경영이 위태로워졌음은 말할 필요가 없다. 『금수회의록』 역시 마찬가지이다. 안국선의 번역으로 밝혀진 『금수회의록』은 국내에서 유통될 수 없는 대표적인 금서였지만 1910년대 『신한민보』에는 표지 그림까지 실려 소개될 정도로 널리 권장된 서적 중 하나이다.

뿐만 아니라 단재 신채호의 『독사신문』과 『최도통전』 역시 『대한매일신보』에 연재만 되었지 국내에서 단행본으로 출판된 적이 없는 서적들이다. 물론 『독사신문』의 경우는 최남선이 편집자로 있었던 『소년』이라는 잡지에 전재가 되기는 했지만, 이때도 『國史私論』으로 제목이 변경된다. 이로 인한 결과인지는 정확치 않으나 『소년』은 바로 정간되고 정간 조치가 풀린 3개월 후 박은식의 『왕양명선생실기』의 게재를 끝으

30) <한인소년서회광고>, 『신한민보』 1917.7.12, 2면.

로 잡지가 폐간된다.<sup>31)</sup> 이러한 정황상 국내 출판업계에서 『독사신문』을 단행본으로 발행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책이 구입 목록에 기재되어 있고 『신한민보』의 서적 광고에도 제시된다. 그러니까 국내 출판 목록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서적들이 홍사단 도서 구입 장부에 보인 셈이다.

언급된 서적들은 지금까지 미주로 이동해 간 한인들을 통해 하와이나 상항(샌프란시스코)에서 출판되었거나 발행되었을 것이라고 간주된 책들이다. 국내 출판 상황을 고려한다면 타당한 말이며 전혀 이견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홍사단 도서 구입 장부에서 드러난 것처럼 국내 출판사로부터 우송료까지 지불하면서 구매한 것이라면 이는 지금까지의 논의들과 다른 가능성을 제기한다. 다시 말해 국내에서 유통되지 않았을지라도 국외 수출용으로 따로 만들어지거나 적어도 국외 반출을 위해 별도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욱이 주요 구입처인 출판사들이 모두 자체 혹은 부속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었던 출판사들임을 고려한다면 가능성은 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국민독본』은 『유년필독』을 개명한 것으로 일제의 출판통제로 인해 발매금지 되자 재미한인소년회에서 제목을 바꾸어 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서적이다.<sup>32)</sup> 실제로 『신한민보』는 〈본사서적〉에서

이책은 우리나라의 대저술가 현치씨가 향년에 저술하여 일흠을 유년필독이라 하였던 책이라 초등교과에도 덕당하고 한문비호는디도 필요한 책이라 우리나라의 디리와 려사의 대강이 있고 그림도 잇스며 한문엽헤는 국문으로 번역하였소<sup>33)</sup>

31) 『독사신문』은 『대한매일신보』에 1908년 8월 27일부터 9월 15일까지, 10월 29일부터 12월 13일까지 총 50회에 걸쳐 연재되었고 미완으로 끝난다. 『國史私論』은 부록의 형태로 『소년』 3년 8권(신문관, 1910.8)에 게재되었다.

32) 이중연, 『책의 운명』, 해안, 2001, 417쪽.

33) 〈본사서적〉, 『신한민보』 1917.10.11, 4면.

라고 소개하고 있다. 『비유요지』 역시 1910년 이후 국내에서는 거의 취급되지 않은 책이다. 민찬호가 하와이에서 새롭게 편찬하여 『증선비유요지』로 유통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도서 구입 장부에는 『비유요지』로 기재되어 있다. 물론 이 두 경우는 앞서 살펴본바, 구입자인 민찬호와 최진하가 국내 출판사를 경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주에서 직접 발행한 서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 외에도 『갈소사전』, 『국가사상학』, 『이태리독립사』와 같은 금서가 여전히 구입되어 읽히고 있었다. 금서 외에도 『간명교육학』을 비롯하여 『(보통교육) 국민의범』, 『국어문전』, 『기독교(의) 청년』, 『농업대요』, 『사민필지』, 『신편척독(완편)』, 『실용작문법』, 『유몽천자』, 『중등만국지』, 『초등식물학』 등, 통감부와 총독부에 의해 검정불인가된 도서들이 상당하다. 통감부는 1908년부터 사립학교령으로 「교과용도서검정규정」을 마련하고 사립학교 교과서를 검정한다는 명분하에 민족적, 애국적 색채를 띠는 서적들을 단속하기 시작했다. 언급된 서적들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들이다.

미국으로 이주한 한인들에 의해 발행된 『신한민보』의 서적 광고에 등장하는 다수의 금서들은 한인소년서회나 태백서관에서 취급되었는데 이들 역시 국내 출판사를 통해 구매 대행했을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해 미주에서의 애국 출판물의 유통은 그 자체로 이루어졌을 수도 있지만 흥사단 도서 구입 장부가 말해주듯 국내 출판사들과 면밀하게 연동함으로써 가능할 수 있었다. 국내에서 금서 혹은 불인가된 서적들은 바다를 건너 '미주'로 이동했고 흥사단과 같은 단체들을 통해 유통되었다. 흥사단의 도서 구입 장부는 국민의 정신과 사상을 발달시키고자 한 애국 계몽서적들의 유통이 가능했던 미주 한인사회의 출판 경향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 5. 결론을 대신하여: 1910년대 서적 유통의 또 다른 길

지금까지 홍사단의 도서 구입 장부를 중심으로 홍사단의 도서 구입 실태와 성격에 대해 살펴보았다. 홍사단은 1918년부터 본격적으로 출판과 도서관 설립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서적을 구입하기 시작했고 이와 관련한 여러 정보를 장부의 형태로 기재해 두었다. 이를 통해 도서 구매에 어느 정도의 금액이 지출되었고 어떠한 서적들을 주로 구매했는지 구매와 관련한 여러 유용한 정보는 물론이고 홍사단의 도서 구입이 김영환, 민찬호, 최진하 등 홍사단의 주요 인사들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신문관, 박문서관, 야소교서회와 같은 국내 굴지의 출판사와 밀접하게 연동되었음을 고찰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구입 서적의 목록을 통해 홍사단이 청년들의 수신과 교육을 위한 교재 외에도 한글로 된 소설들을 비롯하여 기독교 관련 종교 서적과 국내 유통이 금지된 서적들을 구입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은 홍사단이 미주에서 결성된 청년 단체라는 점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낸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결과적으로 홍사단 도서 구입 장부는 홍사단과 같은 청년 단체가 지향한 이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구현하고 있으며 홍사단이라는 단체를 넘어 '미주'라는 해외 공간에서의 서적 유통으로까지 그 범주를 확장시킨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배가된다. 이 점은 앞서도 언급한바, 국내에서 발매금지나 금지처분 받은 도서들의 유통뿐 아니라 국외에서 어떠한 서적들을 주로 필요로 했는지를 추정토록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기독교 관련 서적들은 미국에서 더 쉽게 구매하거나 유통될 수 있을 것 같지만, 한글 성경이나 한글 찬송가와 같은 한글로 된 서적의 구매는 국내 출판사들을 통해 가능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했지만 1910년대 서적 유통의 흐름을 알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가령 『로득개교기』와 같은 1900년대 서적들도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대다수가 신구소설, 특히 1910년대 들어 새롭게 등장한 서적들이 다수를 이룬다. 『신한민보』의 서적 광고와 비교해 보아도 해마다 유입된 소설들의 경향이 달라지는데 도서 구입 장부가 작성될 당시 등장한 소설들은 국내 출판 시장과 유사하다. 이 말은 국내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해외에서 체류한 청년들 역시 비슷한 정서와 감각, 시대정신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특히 『청춘』이나 『기독교청년』, 『신한청년』과 같은 잡지의 구독은 1910년대 국내외 할 것 없이 향유했던 공통의 감각과 사상의 깊이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 점은 1919년 3·1만세운동을 기점으로 국내와 일본뿐 아니라 미주에서도 흥사단 원동지부와 같은 단체를 결성해 상해로 모일 수 있었던 하나의 기폭제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신한민보』, 『소년』, 『청춘』, 『기독교청년』  
홍사단 도서 구입 장부(1918~1920)  
『신문관발매총목록』, 신문관, 1914.  
『교과용도서일람』, 조선총독부, 1917.

### 2. 논문과 단행본

권두연, 『청년학우회의 활동과 참여 인물』, 『현대문학의 연구』 48집, 2012, 119-181쪽.  
\_\_\_\_\_, 『근대 초기 유통 서적 연구-청년학우회 한성연회 도서종람소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55집, 2015, 203-252쪽.  
\_\_\_\_\_, 『신문관의 출판 기획과 문화운동』,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6.  
근대서지 편집부, 『博文書館과 盧益亨 관련 자료 모음』, 『근대서지』 6호, 2012, 775-806쪽.  
김봉희, 『한국 기독교문서 간행사 연구』, 이화여대출판부, 1987.  
\_\_\_\_\_, 『한국개화기서적문화연구』, 이화여대출판부, 1994.  
김영란, 『미주 초기 이민의 출판 활동에 관한 연구』,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2011.  
김종수, 『일제 식민지 문학서적의 근대적 위상-박문서관의 활동을 중심으로』, 『우리  
어문연구』 41집, 2011, 453-483쪽.  
노관범, 『근대 초기 개성 문인의 지역 운동』, 『한국사상사학』 49권, 2015, 253-299쪽.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한국문학연구소 편, 『식민지 시기 검열과 한국 문학』, 동국  
대출판부, 2010.  
박의수, 『도산 안창호의 생애와 교육사상』, 학지사, 2010.  
박의수 · 이순복, 『홍사단 운동의 특징과 교육사적 의의』, 『한국교육학연구』 18권 3  
호, 2010, 293-314쪽.  
방효순, 『박문서관의 출판활동에 관한 연구』, 『국회도서관보』 37권 5호, 2000, 66쪽.  
신용하, 『신민회의 건설과 그 국권회복운동』 상하, 『한국학보』 8·9호, 1977, 31-75  
· 125-188쪽.  
오윤선, 『신소설 서지 데이터베이스의 분석과 그 의미』, 『우리어문연구』 25집, 2005,  
549-584쪽.  
유준기, 『미주지역에서의 안창호의 독립운동-1910년대를 전후한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38호, 2004, 149-169쪽.

- 윤경로, 『105인 사건과 신민회연구』, 일지사, 1990.
- 이명화, 『홍사단 원동임시위원부의 인적 구성과 그 성격』, 『한국근현대사연구』 22, 2002, 88-160쪽.
- 이중연, 『책의 운명: 조선~일제강점기 금서의 사회·사상사』, 해안, 2001.
- 임규찬·한진일, 『林和 新文學史』, 한길사, 1993.
- 임형택, 『소설에서 근대어문의 실현 경로-동아시아 보편문어에서 민족어문으로 이행하기까지』, 『대동문화연구』 58집, 2007, 9-42쪽.
- 장규식, 『1900~1920년대 북미 한인유학생사회와 도산 안창호』, 『한국근현대사 연구』 46호, 2008, 105-146쪽.
- 조경덕, 『근대 단형서사의 '기독교 예화집 수용 양상』, 『국제어문』 54집, 2012, 311-336쪽.
- 최원식, 『민족문학의 논리』, 창작과비평사, 1982.
- 최호석, 『활자본 고전소설의 총량에 대한 연구』, 『고전문학연구』 43, 2013, 245-294쪽.
- 한기형, 『한국 근대소설사의 시각』, 소명, 1999.
- 한명근, 『개화기 신서적 발간과 그 특징』, 『승실사학』 20, 2007, 15-46쪽.
- 황영원, 『근대전환기의 서적과 지식체계 변동』, 『대동문화연구』 81집, 2012, 321-345쪽.
- 홍사단본부, 『홍사단운동』, 대성문화사, 1955.
- 홍사단사편찬위원회, 『홍사단五0년사』, 대성문화사, 1964.
- 홍사단운동 70년사 편집위원회, 『홍사단 운동 七十年사』, 홍사단출판부, 1986.
- 홍사단100년사위원회, 『홍사단100년사』, 사단법인홍사단, 2013.

### 3. 기타 온라인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 <http://search.i815.or.kr>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http://www.koreanhistory.or.kr>

## Abstract

### A Study on the Content and Characteristics of a Book Purchase Ledger of Heungsadahn(興士團)

Kwon, Du-Yeon(Hansei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ontent and characteristics of a book purchase ledger that belonged to the Heungsadahn(興士團) and was preserved in the Independence Hall of Korea from 1918 to 1920. The Heungsadahn was established by Ahn Chang-ho(安昌浩) in San Francisco, the United States, in 1913 to nurture competent young adults. Publishing books and building libraries were two of the multiple projects launched by the Heungsadahn for educational purposes; the book purchase ledger is considered to be a specific outcome derived from this activity.

Various information associated with the book purchases, including the buyer, purchasing office, purchased book title, number of books, volume, price and discounted price, insurance, and delivery price were recorded in the book purchase ledger of the Heungsadahn. Since the ledger provides information on the types of books and the number and volumes of books purchased, it presents detailed information about the books purchased by the Heungsadahn.

The books purchase ledger suggests that the Heungsadahn bought considerable amounts of books, particularly Christian and Korean books. In addition, Korean novels accounted for the majority of the purchased books. Furthermore, the Heungsadahn acknowledged purchasing banned texts, which were prohibited in Korea over the course of the 1910s. This admission shows the characteristics of the Heungsadahn, which strived to perform a confederated reading and to distribute letters and books in pattern that was opposed in Korea at the same time.

(Key Words: Heungsadahn(興士團), Book Purchase Ledger, Book Distribution, Book List, Korean Novels, Christian Books)

314 대중서사연구 제23권 3호

논문투고일 : 2017년 7월 15일

심사완료일 : 2017년 8월 4일

수정완료일 : 2017년 8월 12일

게재확정일 : 2017년 8월 14일